
몸부림이라 불린 사내

이응진 ·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기획팀장
· 문화칼럼니스트

그의 별명은 '몸부림'이었다. 성(姓)이 홍씨인 선배는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홍몸부림'이라 불리었다. 드라마 감독이었던 그 선배는 제작년 가을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날 그는 30여 년의 방송 생활을 마감하고, 머리에 백발을 엮고 몸은 아내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돌아갔다. 방송에 입문할 땐 청춘을 휘날리던 사지 멀쩡한 청년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던 '큐-' 소리도 그 어떤 감독보다 우렁찼었다. 그러나 40대 초반, 드라마에 온몸을 바치다가 병을 얻었고 결국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얼마나 온몸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몸부림'이란 별호를 얻었을까? 또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었을까!

그의 몸부림은 드라마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향해서도 별났다. '몸부림' 선배가 떠오른 건 신문 기사 속의 단어 하나 때문이었다. 유수 신문의 어느 기자가 아들 때문에 폭력 사건을 일으킨 국내 굴지 재벌

그룹 총수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 재벌 총수가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폭 오 씨는 현재 전 부인과 아들(20)이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머물고 있다. 한 원로 조폭은 “오 씨가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지만 만남은 유지해 왔다.”며 “오 씨는 이 폭력 사건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적어도 1년 뒤에야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7년 5월 25일 자.

이 기사를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물론 한국 재벌 그룹 총수의 사고 수준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놀라웠던 것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국어 수준이었다.

이젠 조직폭력배에게도 ‘원로’라는 경어를 부치는 시대가 된 것인가? 무릇 ‘원로’라 함은 벼슬이나 덕망이 높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가치 있는 일에 오래 종사하여 공로가 있는 나이 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만약 ‘몸부림’ 선배가 이 기사를 보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방송국 후배가 그 기사를 쓴 장본인이라면 휠체어를 타고 달려가 종주먹을 쥐며 “당신, 제발 집안 망신 좀 그만 시키라.”라고 눈을 부라렸을 것이다.

‘몸부림’ 선배는 드라마에서 잘못된 우리말을 쓰면 몸부림을 치면서 꾸짖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당사자’와 ‘장본인’의 뜻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PD와 드라마 작가들을 불러, ‘장본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킨 관련자를 지칭할 때 쓰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어휘이고, 당사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말이라고 지칭구를 주며 가르쳐 주었다.

우리말을 잘못 쓰는 사람이 어디 그 기사를 쓴 기자뿐이겠는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마주친 한 유명 인사의 글도 마찬가지였다. 유 **라는 인기 여류 칼럼니스트의 글에서도 우리말은 여전히 망가지고 있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호박에 줄 굶는다고 수박 될 리 없는 법인가. 프로스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주야장창 휘둘렀던 조상을 가진 ***당은 여전히 그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참 변화하기는 어려운가 보다.〉

‘주야장천’을 ‘주야장창’으로 잘못 쓰고 있는 그녀의 이력을 보니 놀랍게도 국문학을 전공했다. 더불어 직업은 소설가였고 **문학작가회의의 이사라는 빛나는 직함도 가지고 있는 분이였다.

기자가 소설가처럼 말과 글로 먹고사는 사람들, 말을 지키고 가꾸어야 될 파수꾼들조차도 이렇게 우리말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게 현실이니 보통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요즘의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은 주인 없이 버려져 별관을 우왕좌왕 질주하는 고삐 풀린 말이 된 느낌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말을 써야 할 때 ‘틀리다’는 단어를 사용한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말하면 당장 사람들은 “당신 생각은 내 생각과 틀려!”라고 말한다. 몸부림 선배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발견할 때마다 흥분해서 소리치곤 했다.

“‘다르다’는 말 대신 ‘틀리다’고 표현하는 저간에는 자기주장만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가 숨어있다. 드라마에서 그런 현실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은 문화를 창달하기는커녕 우리말을 가르쳐야하는 최소한의 자기 사명도 다하지 않는 거다.”

드라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들 중에 선배가 싫어했던 표현은 또 있다. 배우들이 걸핏하면 내뱉는 ‘엄장 지른다’ 말도 그가 몸부림치며 싫어했던 표현 중 하나다. ‘사람의 배를 가르고 내장에 소금을 뿌린다.’는 뜻

을 가진, 사전에도 없는 이 섬뜩한 저주를 아무 느낌 없이 내뱉는 배우들을 볼 때마다 선배는 우리말의 미래를 태산만큼 걱정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국적 없는 말과 어휘들이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에서 우리말의 머리 위로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릴 때마다 그의 몸부림은 분노로까지 변했다. 선배의 걱정이 전염된 것일까? 우리말이 이렇게 저렇게 냉대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젠 몸부림을 치고 싶어진다.

어떤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의 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민족은 지금의 7천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 지구 상에서 한국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또 믿고 싶지도 않은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의 염장을 지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한국어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파수꾼들을 생각한다. 더불어 ‘몸부림’ 선배가 휠체어를 타고 방송국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달려와 종주먹을 쥐고 눈을 부라리며 “방송이 우리말을 지키는 최초, 최후의 파수꾼이야!”라고 몸부림쳐 주기를 희망한다.